

# 83年 上半期 世界原油生産動向

## — 감소추세 일단 멈춰 —

금년 상반기 세계原油生産량은 前年同期와 비교해볼 때 큰 변화는 없다. 82년도 原油 生産량은 27억4천백만톤이었으며, 상반기 生産実績은 13억 5천4백만톤이었다. 금년 상반기 実績은 13억2천4백만톤으로 前年同期对比 2% 줄었으나, 이 정도의 減少는統計上으로 별 의미가 없다. 重要な 것은 價格政策에 대한 OPEC의 現實主義로의 복귀로 79년 이후 3년간 계속 감소하던 原油生産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OPEC의 상반기 生産実績은 4억 1천1백만톤으로 12.5%가 감소했으나, 前年同期의 18% 감소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진 것이다. 반면 기타 自由世界는 5%가 증가하여 5억 4천 2백만톤을 기록했다. 共産圈의 生産량은 3억 7천 1백만톤으로 1.5% 늘어났다. 금년 6월統計를 보면, OPEC의 生産량은 6%밖에 줄지 않아 世界總生産량은 금년 中반에 들어 82년도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 OPEC의 生産実績

비록 世界原油生産量중 OPEC의 비중이 70년대의 50%, 작년의 35%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다시 31%로 낮아 지기는 했으나, OPEC의 生産량은 대부분 輸出되고 있기 때문에 OPEC原油는 世界市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OPEC의 原油生産량은 하루 평균 1,850만배럴인 데 반해 국내소비는 하루 250만배럴 미만이였다. 한편 작년 상반기에 OPEC는 生産량의 85%인 3억5천만톤을 수출했다.

금년 초까지만해도 非OPEC産油國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市場安配問題가 OPEC의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原油價格과 生産쿼터에 관해 지난 3月合意에 도달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로 인해 2/4分期에는 어느정도 OPEC의 단결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原油生産도 지난 2月の 낮은 수준에서 점차 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반기 実績을 돌이켜 볼 때, OPEC 會員國들간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輸出需要減少를 대부분 떠맡고 있으며, 原油生産은 6월에 접어들어 生産쿼터量인 하루 500만배럴에 거의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前年同期에 비해 73~74백만톤이나 감소했다.

이라크는 南部에 있는 出荷施設이 파괴되어 5백만톤이나 줄었으며, 기타 페르시아灣國家들도 生産량이 감소하여 카타르가 230만톤, 아부다비가 150만톤, 두바이가 100만톤 감소했다.

나이지리아는 400만톤이 줄었으며, 인도네시아는 82년 17%감소에 비해 금년 상반기에는 11%밖에 生産이 줄지 않았지만, 世界的인 石油消費減退에 따라 輸出과 生産이 모두 감소했다. 이들 國家들이 포함 92~94백만톤이나 감소된 반면, 이란, 리비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등은 총3천5백만톤의 生産증가를 기록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2月 최근 수년이래 최저生産량을 기록했었으나, 2/4분기에는 原油生産이 급격히 회복되어 OPEC쿼터量인 하루 130만배럴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상반기 총生産량은 前年同期보다 감소했다.

리비아는 하루 110만배럴의 쿼터량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前年同期보다 700만톤이나 증대시켰다. 中東의 이란은 戰時狀態와 이라크의 空襲을 잘 극복하여 前年同期보다 2,200만톤이나 생산량을 늘렸으며, 쿠웨이트는 300만톤이 증가했다. 이밖에 베네수엘라는 400만톤이 늘었으며, 非公式總計에 의하면 에콰도르의 原油生産도 새 油田의 개발에 따라 증가되었다.

## 非OPEC産油国の 생산실적

非OPEC産油국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生産량이 증가하여 적게는 수천톤, 많은 경우는 수백만톤씩이 늘었다. 共産圏을 제외한 非OPEC産油国の生産량은 2,400만톤이 늘어 총 5억4천3백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半이상은 北美生産分으로 美国이 2억3천9백만톤, 캐나다가 3천7백만톤을 생산했다.

82년과 마찬가지로 美国에서는 石油消費감소로 인해 石油輸入이 크게 줄었다. 政府의 推定値에 의하면, 原油生産은 前年同期보다 0.4%증가한 하루 870만배럴에 달했으며, NGL은 하루 16만배럴로 1.2%가 늘었다.

캐나다의 原油生産은 前年同期보다 5% 늘었으며 NGL은 총 원유생산량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10여년간 지속적인 生産増加를 보여오던 멕시코는 작년 12월 기록적인 生産량의 增加덕분으로 81년對比 17.5%나 生産이 늘었으나, 금년에는 2월 이후 増加率이 눈에 띄게 둔화되어 82년 상반기에 비해 약 2% 증가에 그쳤다. 멕시코의 상반기 生産実績은 7천 2백만톤이며, 이 중 9%는 NGL이다.

77~78년 절정에 달했다가 그 후 斜陽길에 있는 트리니다드를 제외한 中南美地域의 生産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이 地域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나라는 브라질이다. 현재 財政危機에 처해 있는 브라질은 石油의 輸入依存度を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国内生産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5%나 증가했다. 브라질은 금년 상반기에 하루 32만배럴을 생산했으며, 이중 18만배럴은 海底油田에서 생산됐다. 브라질의 85년도 原油生産目標은 하루 50만배럴로 책정되어 있다.

페루의 原油生産은 油田이 있는 正綠地帶의 심한 홍수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아르헨티나의 石油生産은 포크랜드戰爭이후 아직도 부진한 상태에 있다.

西歐의 原油生産은 14%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北海油田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英国은 금년 상

반기에 510만톤, 노르웨이는 220만톤이 증가했으며, 英国의 경우 금년중에 4개의 새 油田에서 생산을 개시하면 원유생산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노르웨이는 작년 11월 Statfjord油田의 추가 생산시설이 완공되고 금년 들어 소규모인 Valhal油田이 새로 생산에 들어감에 따라 原油生産이 늘어난 것이다.

## 西歐의 생산량증가

네덜란드의 海洋原油生産은 82년 10월에 개시됐으나 生産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곧 陸上生産량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역시 지난 해 Gorm油田이 生産을 개시함으로써 原油生産이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 海上生産을 확대할 계획이다. 地中海의 새 油田 덕분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생산량도 늘어났으며, 특히 스페인의 상반기 생산량은 벌써 82년 한해동안의 생산량을 웃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統計에 따르면, 소련의 상반기 原油生産実績은 3억7백만톤으로 같은 기간 全世界生産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소련의 비중은 81년 21%, 82년 22%로 매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련의 83년도 生産目標은 619백만톤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현 추세로 보아 이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1%씩 증가하게 되면 85년도에 630백만톤生産目標도 충분히 달성될 전망이다.

아프리카와 中東地域의 원유생산은 OPEC 會員國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기타 國家들의 생산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집트는 금년 상반기에 1,900만톤을 생산, 20%의 増加率을 기록했다. 이집트의 금년도 生産目標은 4,900만톤이며 하반기에 수개의 새로운 油田에서 生産이 개시될 예정이다.

西아프리카의 경우, 앙골라, 카메룬, 콩고 및 아이보리 코스트 등은 전반적으로 生産이 늘었다. 中東의 非OPEC國家중 生産이 현저히 증가한 나라는 오만으로 前年同期對比 12%가 증가하였으며, 물량으로는 9백만톤에 달했다.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極東의 産油國들도 대부분 生産량이 증가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입수할 수 없지만, 中共의 상반기 生産량은 5천2백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량은 中共의 中長期最大生産目標인 年 1억톤을 상회하고 있다. 中共에서는 현재 장기적인 海洋石油開發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83년 상반기 世界 原油推定 生産量

국 별	82년상반기	82년하반기	83년상반기	증감(%) 83 / 82	83년 비중(%)	국 별	82년상반기	82년하반기	83년상반기	증감(%) 83 / 82	83년 비중(%)
북미				+		이집트	15,861	17,500	19,000	+19.8	1.4
미국	238,000	243,500	239,250	+ 0.5	18.0	알제리아	15,470	18,070	16,050	+ 3.7	1.2
캐나다	34,900	39,300	36,600	+ 4.9	2.8	가봉	3,710	3,773	4,000	+ 7.8	
총합	272,900	282,800	275,850	+ 1.1	20.8	앙골라/카빈다	3,203	3,200	3,500	+ 9.3	
중남미						카메룬	2,500	2,850	3,000	+20.0	
멕시코	71,180	79,210	72,500	+ 1.9	5.5	투니지아	2,539	2,562	2,550	+ 0.4	
베네수엘라	44,255	55,945	48,355	+ 9.3	3.6	콩고	2,150	2,250	2,300	+ 7.0	
트리니다드	4,654	4,450	4,400	+ 5.5		아이보리코스트	300	500	750	+150.0	
콜롬비아	3,593	3,733	3,700	+ 3.0		자이레	503	552	530	+ 5.4	
큐바	234	306	300	+28.2		베닌	-	2	100	...	
과아테말라	165	175	185	+12.1		가나	35	25	30	-14.3	
바르바도스	15	22	24	+60.0		모로코	17	24	20	+17.6	
소계	124,096	143,841	129,464	+ 4.3	9.8	소계	96,758	119,458	104,760	+ 8.3	7.9
기타중남미						중동					
아르헨티나	12,307	12,083	11,775	- 4.3		사우디아라비아	178,660	144,190	105,000	41.2	7.8
브라질	6,375	6,980	7,955	-14.9		이란	37,970	61,750	60,500	+59.3	4.6
에콰도르	5,100	5,520	5,750	+12.7		쿠웨이트	20,000	21,870	23,200	+16.0	1.8
체코	4,700	4,925	4,000	-14.9		이라크	26,440	20,375	20,000	-24.4	1.5
칠레	1,050	950	1,000	+ 5.0		아부다비	21,415	19,565	17,900	-16.4	1.4
분리비아	600	610	600	-		오만	7,855	8,175	8,835	+12.3	
소계	30,102	31,068	31,080	+ 3.1	2.3	두바이	9,090	8,820	8,000	-12.0	
서유럽						카타르	8,115	7,680	5,825	-28.2	
영국	49,313	54,100	54,368	+10.3	4.1	시리아	4,255	4,370	4,275	+ 0.5	
노르웨이	12,222	12,262	14,852	+21.5	1.1	터키	1,222	1,200	1,200	- 1.8	
서독	2,125	2,109	2,050	+ 3.5		바레인	1,117	1,070	1,100	- 1.5	
스페인	626	894	1,450	+131.6		샤르자	165	170	220	+33.3	
네덜란드	879	1,016	1,300	+47.9		이스라엘	7	8	7	-	
이탈리아	778	961	1,100	+41.4		소계	316,316	299,243	255,462	-19.2	19.3
엔마크	609	1,077	1,050	+72.4		극동					
프랑스	810	828	800	- 1.2		중공	50,640	51,480	52,000	+ 2.7	3.9
그리스	566	546	650	+14.8		인도네시아	33,255	32,465	29,500	-11.3	2.2
오스트리아	661	629	630	- 4.7		인도	9,460	10,252	11,600	+22.6	
소계	68,589	74,422	78,250	+14.2	5.9	호주	8,900	8,630	9,200	+ 3.4	
동구권						말레이시아	7,200	8,000	8,500	+18.1	
소련	303,000	310,000	307,000	1.3	23.2	부루네이	3,800	4,200	4,000	+ 5.3	
루마니아	5,800	5,900	5,800	-		버마	700	650	630	-10.0	
유고	2,144	2,180	2,250	4.9		필리핀	180	290	500	+177.8	
알바니아	2,000	2,000	2,100	+ 5.0		뉴질랜드	283	394	307	+ 8.5	
헝가리	1,018	1,008	1,010	- 0.8		카키스탄	282	300	300	+ 6.4	
폴란드	150	150	150	-		일본	197	201	200	+ 1.5	
불가리아	150	150	150	-		태국	-	-	100	-	
체코	44	45	45	+ 2.3		대만	85	90	85	-	
동독	30	30	30	-		소계	114,982	116,952	116,922	+ 1.7	8.8
소계	314,336	321,463	318,535	+ 1.3	24.1	OPEC원유생산량	454,117	468,343	397,230	-12.5	30.0
아프리카						OPEC NGL생산량	16,100	17,000	14,000	-12.5	1.1
나이지리아	32,355	31,510	27,980	-13.5	2.1	OPEC 원유및NGL	470,117	485,343	411,230	-12.5	31.1
리비아	18,115	36,640	24,950	+37.7	1.9	세계 합계	1,354,079	1,406,247	1,324,323	- 2.0	100.0

한편, 極東地域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나라는 印度,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이다. 印度는 83會計年度の 目標을 초과달성 하였으며, 현재도年間 2천3백만톤이 넘는 水準에서 生産이 이루어지고 있다.

### 産油国数の 증가

말레이시아는 石油自給自足政策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82년 중반에 Matinloc油田에 生産이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의 불운했던 石油開發失敗의 악몽에서 벗어나고 있다. 同油田의 원유생산은 82년 하반기에 급

격히 증가하였으며, 금년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은 최근 Shell이 개발한 소규모油田에서 原油生産이 개시됨으로써 産油国대열에 끼게 되었다.

70년대에 50個国도 못되던 産油国수가 이제는 74個国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1次石油危機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石油探查 및 開發의 결과이다. 그러나 크게 늘어난 産油国数에도 불구하고 大産油国の 역할은 요지부동이다. 금년도 상반기 世界原油生産量の 88%는 불과 18個国에서 생산되었으며 世界生産量 가운데 이들 国家的 比重은 1~23%로 다양하다. \*

## 海外石油市場動向

# 사우디, 原油販賣 전담기구 설립한다.

## - 原油판매의 脱메이저 指向 -

세계 최대의 石油輸出국인 사우디 아라비아가 최근 國營 원유판매전담기관의 설립준비에 착수했다.

美國 메이저系 석유전문지「피트롤리엄·인텔리전스·위클리」(PIW) 최신호에 따르면, 지금까지 國營석유회사 페트로민이 취급해 오던 정부 간거래 (G-G)는 물론, 아람코系 메이저 4社가 독점해온 중장기계약의 소비국석유회사등의 직접거래 (D-D) 원유의 수출판매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사우디 原油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우디는 또한 스위스法人 노르벡을 통해 石油현물시장에의 적극적인 진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사우디의 원유판매전략의 중대한 방향전환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사우디정부가 설립을 추진중인 원유판매전담회사는 내셔널·엑스포트·마케팅·에이전시(假稱)로 현재 생산, 판매, 정제, 수출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페트로민의 판매부문을 분리, 독립시키는 형태로 발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우디 原油의 취급비율은 아람코系 메이저 4社가 약 50%, 페트로민이 국내소비분, 해외위탁정제분과 G-G원유등을 합쳐 약 50%이다.

해외에서의 원유판매에 있어서는 가격과 물량 모두 주도권의 거의 대부분을 메이저 4社가 장악하고 있는데 작년말부터 금년 봄에 걸쳐 4社로부터의 거래량의 축소 때문에 원유가격인하 압력을 받았을 때 생산량은 하루 3백만배럴까지 떨어져 原油收入의 격감은 물론 수반가스의 생산격감으로 국내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는등 에너지공급위기로 물리치는 쓴 경험을 맛보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원유수출판매면에서 주도권 강화에 적극 나선 가운데 현물원유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노르벡은 사우디 石油省의 관리하에서 지난 7~8월에 하루 30만~50만배럴의 사우디원유를 세계현물시장에 판매한 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중장기계약원유의 분야에서도 脱메이저를 지향하는 강력한 판매체제를 구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